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①	2	⑤	3	⑤	4	①	5	②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②
16	⑤	17	④	18	③	19	③	20	⑤

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무지(無知)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친소(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인 인(仁)을 바탕으로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克己復禮]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자는 사람됨의 본질인 인은 충서(忠恕)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예는 인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에 우열이 없다는 제물(齊物)을 주장하였다.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서 사물을 보면 시비(是非), 미추(美醜), 빈부(貧富)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신의 섭리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며, 신에 대한 사랑과 신의 은총을 통해 천상의 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대화의 습승은 지눌이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더라도[頓悟] 몸에 벤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漸修]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6.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가상 대화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의 이치[理]를 탐구함으로써 지극한 암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마음을 살펴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7.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감정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성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즉 어떤 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근거한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벤담은 폐락에는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고, 밀은 폐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노자의 이상 사회 이해하기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소국과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이치[道]에 따라 살아가면서,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지향한다.

11.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예법(禮法)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순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군주가 먼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둑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둑이의 주장이다. 둑이는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둑이는 선한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덕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베이컨과 테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테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 즉 우상(偶像)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진리 발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연역적 추론이 아닌 귀납적 추론이라고 주장하였다. 테카르트는 인간의 사유 능력을 통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氣)가 발하고 그것에 이(理)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보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은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각각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단은 순수하게 선한 도덕적 감정이며, 칠정은 선과 악이 섞인 것으로 이 두 가지 감정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여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고, 인간은 도덕적 차원의 기호인 영지(靈知)의 기호와 육체적 욕구 차원의 기호인 형구(形騮)의 기호를 모두 지닌다고 본 반면, 동물을 형구의 기호만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선이나 악 중 어느 쪽을 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자권(自主之權)도 함께 부여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동학과 동도서기론 비교하기

갑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을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동학은 남녀노소와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이상 사회가 현세에서 실현[後天開闢]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가치와 절서[東道]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 기술[西器]을 수용하고자 주장한다. 한편 동학과 동도서기론은 공통적으로 서양 종교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용수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대승 불교 사상가인 용수의 주장이다. 용수는 공(空)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중도[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觀] 중관 사상을 창시하였다. 중관 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因緣)에 따라 임시로 존재한다고 보며, 모든 것이 있음[有]과 없음[無]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의 자리에 머문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스토아학파 사상가는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정념에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궁적인 삶보다는 운동하는 삶을 지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토아학파 사상가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庸을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가장 적절한 상태로 보았으며, 풍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 기개, 욕망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공통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